95년 수출증가 전자부품 최대 기여

무역협회는 「95년도 대내외 무역환경과 수출입전망」보고서를 통해 95년 수출증가부분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은 전자부품이 전체의 33.9%를 차지, 94년의 45.3%에 비해서는 기여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최대 기여품목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수출증가 기여율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1993	1994		1995	
	금액	금액	증감액	금액	증감액
전자부품	12,047	17,600	5,553 (45.3)	21,500	3,900 (33.9)
자동차	4,493	5,150	657 (5.4)	6,600	1,450 (12.6)
직물	7,247	8,660	1,413 (11.5)	9,900	1,240 (10.8)
일반기계	3,055	4,010	955 (7.8)	5,100	1,090 (9.5)
화학공업제품	4,634	5,890	1,256 (10.2)	6,940	1,050 (9.1)
가정용전자	6,253	7,005	752 (6.1)	7,630	625 (5.4)
산업용전자	4,928	5,234	306 (2.5)	5,800	566 (4.9)
일차산품	3,211	3,780	569 (4.6)	4,280	500 (4.3)
선박	3,727	4,300	573 (4.7)	4,700	400 (3.5)
철강제품	6,613	5,900	-713 (▽5.8)	6,030	130 (1.1)
신발	2,309	1,717	-592 (▽4.8)	1,370	-347 (▽3.0)
섬유제품	7,171	6,820	-351 (▽2.9)	6,800	-20 (▽0.2)
생활용품 *	1,795	1,770	-25 (▽0.2)	1,750	-20 (▽0.2)
총수출	82,236	94,500	12,264 (100.0)	106,000	11,500 (100.0)

주)①(　)내는증가기여율　②＊신발을제외한생활용품

또 자동차의 기여율은 12.6%로 94년의 5.4%보다 크게 높아지고 일반기계도 9.5%로 94년의 7.8%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수출전망은 미국수출의 경우 현지경기 둔화 및 94년중 급증세를 보였던 자동차와 반도체의 증가세 둔화로 94년(10.5%증가 200억달러)보다 7.5% 증가한 21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1995/1/16>